

장소가 가진 기억

이사부 독도기념관

박정환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187-5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4,115m ²
건축면적	2,097.56m ²
연면적	3,274.71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높이	8.1m
건폐율	14.86%
용적률	13.20%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설계	터구조
설계	박정환, 송상현
설계담당	김유경, 심운, 정은선, 이현우, 정성욱, 방지희
국제설계공모담당	박경탁, 이남진, 이상수
시공	(주)한주건설
기계·전기설계	(주)하나기연
조경	(주)동심원 조경기술사사무소, 스튜디오이공일 조경기술사사무소
설계기간	2017. 12.~2018. 8.
시공기간	2018. 12.~2022. 9.
건축주	삼척시청



육향지 연못

이사부독도기념관은 한때 바다 위 섬이었고
현재는 매립지인 대지의 지형적 특성, 곧 이곳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현존하는 땅을 발굴함으로써 지형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드러내며,
이 기념비적인 장소의 주요 요소가 되도록 하였다.



이사부독도기념관과 육향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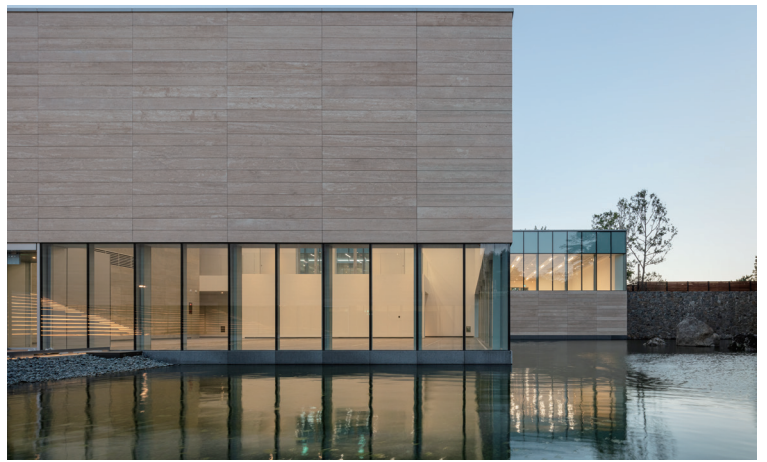




영토수호기념관과 독도체험공간



© 2023 R2A



© 2023 R2A



© 2023 R2A

상 육향지에서 바라본 독도체험공간
하 바위마당



바위마당에서 바라본 영토수호기념관



027
028



029
030



031
032

상 로비의 석재응벽
 하·좌 로비 홀
 하·우 육향지 방향의 로비 홀

방문객들의 순차적인 경험은 건축 레벨의
연속적인 변화와 실내외 공간의 교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건축적 산책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 건축사
E&E

장소성과 역사성

대지는 삼척시 정라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대지와 삼척항 사이에 자리한 폐공장 때문에 바다로 향한 시각적 소통은 차단되어 있다. 이곳은 과거 신라 이사부 장군이 지금의 울릉도·독도인 우산국을 정벌하기 위하여 출정하였던 곳이며, 대지 중심에 위치한 육향산은 이사부 장군이 출정할 당시에는 바다 위의 섬이었으나 현재는 매립돼 산이 된 곳이다. 매립된 땅 아래에는 과거 섬이었던 육향산의 하부 지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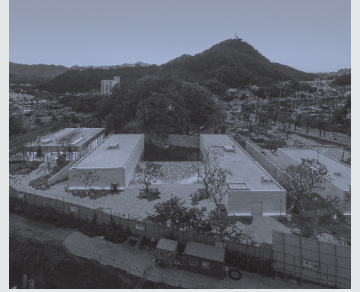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한때 바다 위 섬이었고 현재는 매립지인 대지의 지형적 특성, 곧 이곳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현존하는 땅을 발굴함으로써 지형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드러내며, 이 기념비적인 장소의 주요 요소가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회복된 지형에 물을 재도입하고 이러한 물을 교육, 공공성, 이사부독도기념관의 체험공간과 휴식공간 등의 건축 프로그램과 연계시킴으로써 우산국으로 출정하기 위한 출항지였던 대지의 수리적 자연을 그 당시의 여러 레벨로 회복시키고 드러내 고자 하였다.

이처럼 대상지의 레벨을 과거의 땅 레벨로 낮추고 이곳에 물을 도입함으로써 바다였던 과거의 환경을 다시 회복하려 하였다. 이렇게 도입한 물은 바위마당에서 방문객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되며, 육향산과 연계돼 바다 위의 섬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는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으로 출정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환경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독도의 이미지를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지역의 과거 경관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삼척시의 새로운 문화적 자원으로 역할하기를 바랐다.

다양한 선택과 풍부해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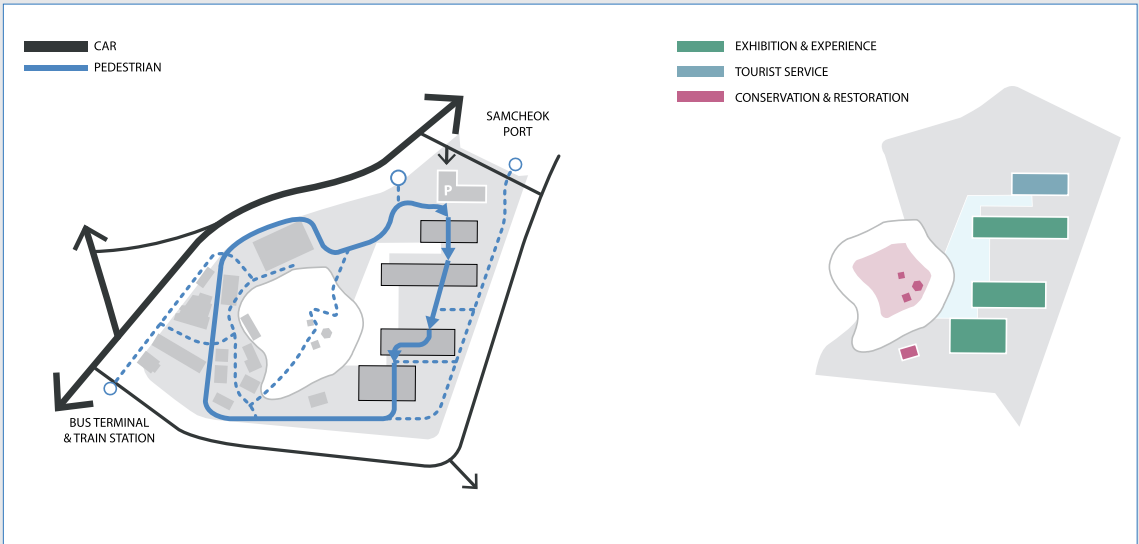
건축 프로그램들은 관광안내센터·영토수호기념관·독도체험공간·복합휴게공간으로 나뉘어 배치되고, 대상지 본연의 자연경관을 드러내는 외부공간들이 각 건축공간 사이를 채우고 연결해 건축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전시관은 하나의 건물이 아닌 분동의 형태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전시 관람 방식과 공간 감상 방식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전체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람하는 방식과 각각의 전시관에서 독립된 전시를 관람하는 방식도 모두 가능하다.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시품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동과 동 사이를

© 김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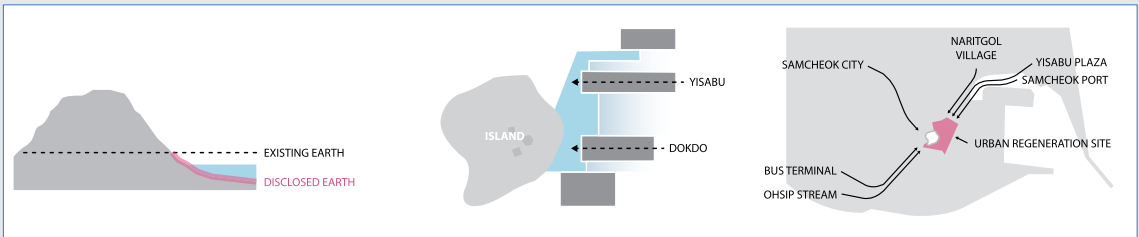
상 이사부독도기념관과 육향산
하 영토수호기념관과 독도체험공간

이동해 가며 내부 전시공간과 외부 자연을 교차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중간 지점에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관람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내부의 전시물뿐 아니라 주변의 외부 공간과도 서로 소통하며 이곳 자체를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 찾아오게 된다. 이사부독도기념관 방문객들의 순차적인 경험은 건축 레벨의 연속적인 변화와 실내외 공간의 교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건축적 산책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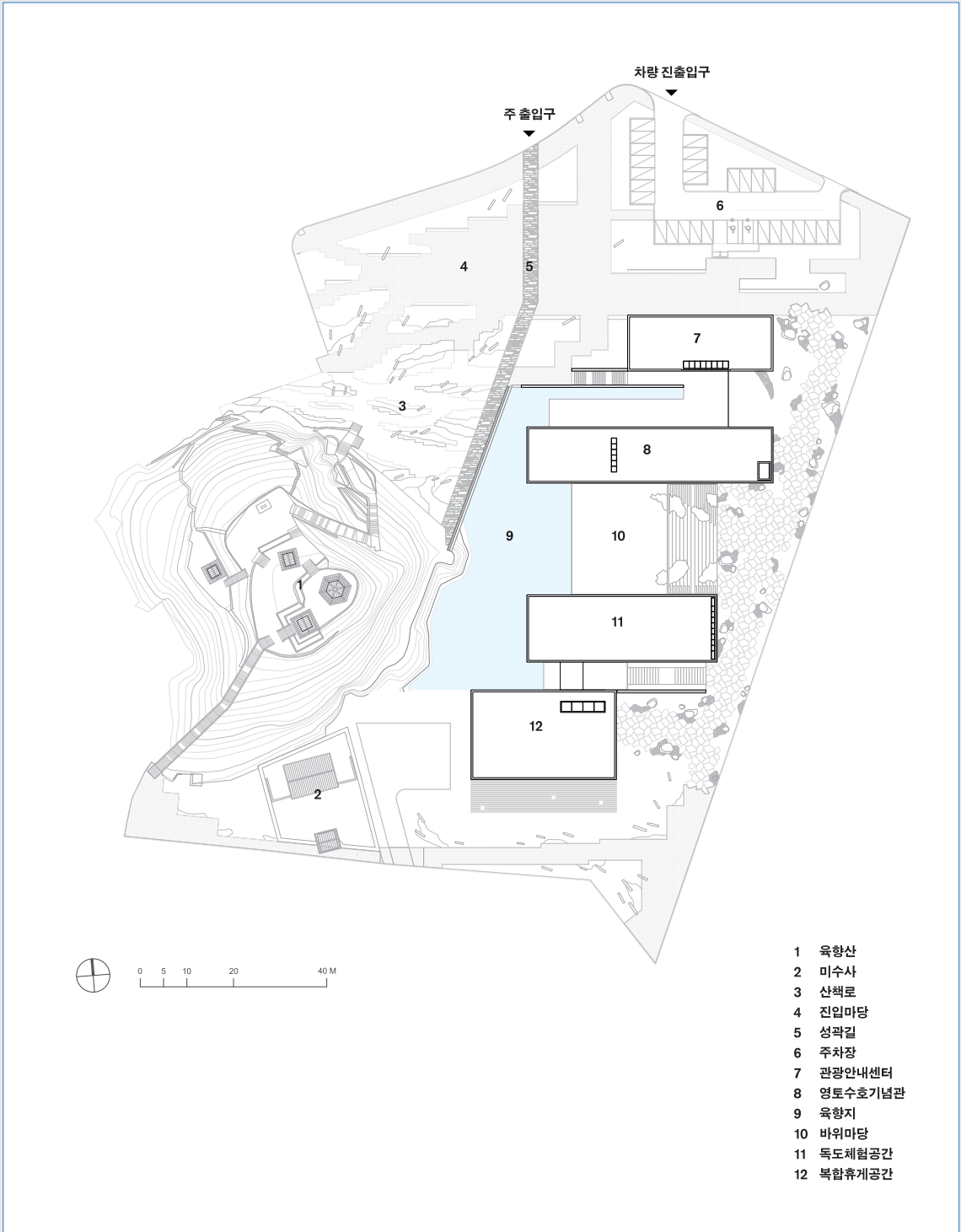


© 김필레스 건축사사무소

관람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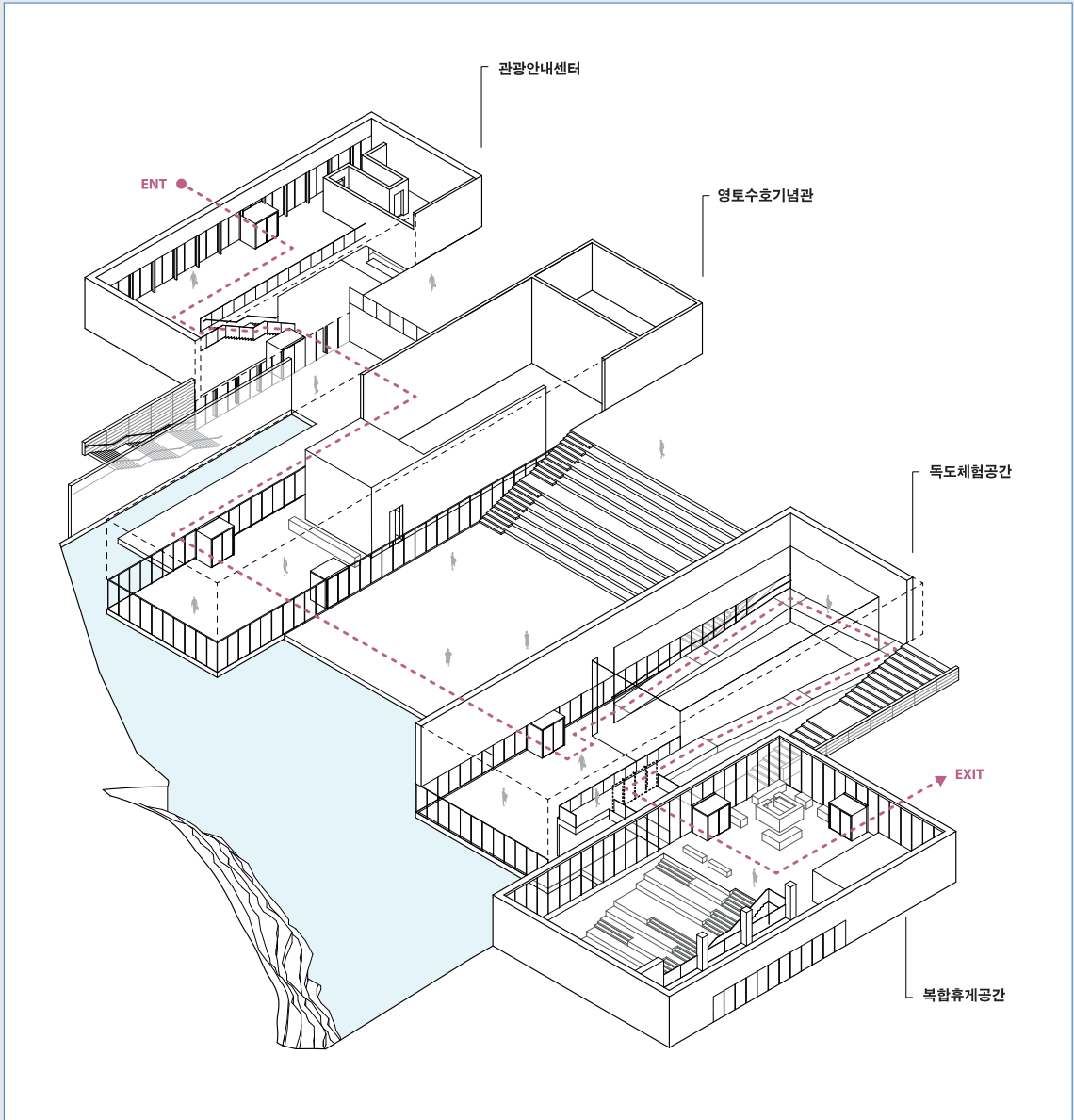


육향산과 연계된 지형



- 1 육향산
- 2 미수사
- 3 산책로
- 4 진입마당
- 5 성곽길
- 6 주차장
- 7 관광안내센터
- 8 영토수호기념관
- 9 육향지
- 10 바위마당
- 11 독도체험공간
- 12 복합휴게공간

배치도



엑소노메트릭

장소의 기억을 되짚어 나가듯 걸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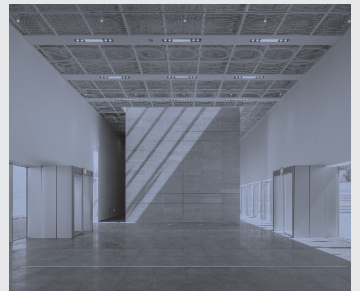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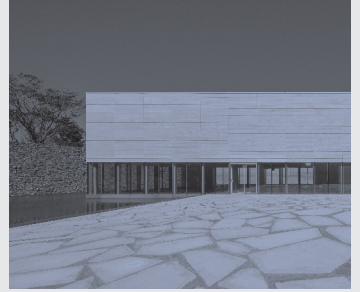
방문객들은 관광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이사부독도기념관의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 관광안내센터의 상층부는 도로 레벨에서 연결되며, 카페 겸 라운지 공간에서는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진입 로비와 안내센터가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삼척시와 이사부독도기념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관광안내센터를 지나 영토수호기념관으로 가는 길에는 과거 신라시대 수군의 기지였던 삼척포진성의 자리를 보존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성벽의 형태를 상징화한 벽이 전면에 위치한다. 관광안내센터 옆의 산책로에는 삼척포진성의 위치가 바닥에 새겨진 성곽길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외부계단을 따라 하부 레벨로 진입할 수 있다.

영토수호기념관에 진입하면 높은 층고의 로비공간이 등장한다. 외부로 열려 있는 창을 통해 외부 조경공간과 서로 소통하고, 삼척포진성의 상징이기도 한 석재옹벽은 수공간인 육향지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메인 리셉션 데스크 상부에서는 천창을 통해 시간에 따라 빛이 떨어지며, 석재벽을 따라 흘러 들어오는 빛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곳은 본격적인 전시의 시작을 위한 메인 대기공간인 동시에 필요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시관 내부로 들어서면 삼척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사부 장군의 일대기와 그가 이룬 업적의 역사적 의의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상영된다.

영토수호기념관과 독도체험공간 사이에 위치한 바위마당은 육향지와 육향산을 함께 바라보며 독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들은 이곳에 앉아 조용히 명상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기도 한다.

바위마당을 지나 진입하게 되는 독도체험공간 로비에는 독도 모형이 전시되며, 창을 통해 육향산 하부의 드러난 암반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독도체험공간 내부 전시관 역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전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마치 독도에 직접 온 듯한 실감 독도체험을 통해 독도의 문화적 향유를 가능케 한다. 독도체험공간 주변을 따라 연결된 경사로는 상층부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이곳에서 로비의 전시를 위에서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다볼 수 있게 된다.

© 김경태



상 바위마당에서 바라본 영토수호기념관
중 로비 홀
하 로비의 석재옹벽



상 분동 형태로 구성된 건물
하 바위마당

독도체험공간 남쪽으로 이어진 브리지를 건너면 복합휴게공간으로 연결된다. 관람객들은 브리지를 건너면서 육향산 하부와 육향지를 다시 감상하게 된다. 브리지를 건너 도착한 복합휴게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외부 테라스와 연계된 카페공간이 있으며, 아래층의 라이브러리도 이어지는 계단식 강연장은 북카페나 강연·이벤트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개방성과 정체성을 두르고

외부공간은 건축을 둘러싸는 조화로운 조경계획을 통해 대상지를 조망하거나 진입할 때 건축물만 도드라지기보다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였다. 건축물 전면에는 광장을 계획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개방적인 입면을 통해 개방적인 가로를 조성하였다. 도시적 맥락을 고려해 다양한 위치 및 방향에서 개방적인 진입동선을 계획하고, 부지 내부에서 각각의 진입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외부공간 계획의 기본 방향은 잠재적 전시공간으로서 외부공간의 경관적 체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척·울릉도·독도의 고유한 경관적 특징을 식생, 화산석, 비정형의 자연미를 통해 표현하였다.

또한 대상지 전체를 순환하는 동선을 따라 외부공간과 실내공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자연 소재와 인공 소재가 공존해 대상지의 장소성이 표현되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식재는 도시의 식생과는 다른 야생적으로 다양한 텍스처의 울릉도·독도 식생을 활용해 자연 본연의 경관미를 구현하도록 하였으며, 육향산을 비롯한 삼척시의 자생 수종을 선정하였다. 외부공간 포장은 재료의 특성과 형태가 자연성을 부각하고 정형적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PC콘크리트와 화강석판석이 주 포장재로 활용되는 가운데 현무암·원목·화산석 등도 활용하였다.